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에 나타난 전통의 전유방식과 타자인식

- 신채호와 이광수를 중심으로 -

신선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위인선양론과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 창작 배경
- III. 전통의 전유를 통해 본 이순신의 형상화와 조선인상
- IV. 타자인식을 통해 본 자기인식 구축 방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초 한국인이 위인전을 통해 한국인(조선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 방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1908년『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신채호의 「水軍第一偉人 李舜臣」과 1931년『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李舜臣」이다. 이들 작품은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 전통을 중심으로 조선과 조선인의 정체성을 생산했던 지식인담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신채호는 역사전기소설을 통해 구한말 근대적 국성과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자 전통의 근대적 전환을 통한 '국가정신=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반면에, 이광수는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사상을 그의 작품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문학적 계보에 따라 작품을 분류하며 분석해 간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거리를 두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두 작품을 분석하였다. 신채호와 이광수가 작품에서

*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통을 전유하는 방식에 친착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적국인이었던 명인과 일본인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인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주제어 : 신채호, 이광수, 이순신, 위인선양론, 민족개조론, 한국인(조선인), 정체성, 전통, 타자인식

I. 머리말

본고는 근대 지식인이 위인전을 통해 한국인(조선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 방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은 1908년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신채호의 「水軍第一偉人 李舜臣」(이하 「李舜臣傳」이라 칭함)과 1931년 7월 16일부터 다음해 4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李舜臣」으로 역사전기소설과 역사소설로 각각 분류된다. 역사전기소설은 전대의 '傳'양식을 계승하는 장르이자 역사소설의 모태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준거로 삼아 이순신의 문학적 형상화에 주목하여 두 소설이 영웅소설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의 수난사를 제재로 삼은 작품들은 대체로 식민 현실을 우회적으로 반영하면서 당대의 위기 극복 의지를 주요 주제로 담아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와 동시에 작가들의 역사의식이 반영된 작품 속 텍스트들에는 이념적 편차도 내재한다.²⁾ 이러한 점들을 포착해내기 위해

1) 이순신 연구는 주로 일기나 기록을 통해 일상인으로서의 면모를 살핀 연구와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을 통해 이순신의 문학적 형상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로 대분된다.

서는 신채호와 이광수의 작품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문학사적 계보가 아닌 문화사적 맥락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부터 지식인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민족문화를 형성하고자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에는 자민족국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수적 문화 인식을, 1910년대 강점을 계기로 해서는 저항적·문명적 국수보존론을, 1920·30년대는 민족문화사상을 통해 문화운동을 펼쳤다. 이들 운동은 주로 국조·국사, 국어·국문, 위인 선양 등을 통해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거나 민족정신을 강화하고 계몽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³⁾ 이 가운데 위인 선양은 국권 상실의 위기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서 꾸준히 활용되었다. 주로 단군, 이순신, 을지문덕, 광개토대왕, 대조영, 강감찬, 최영, 권율 등이 위인 선양을 목적으로 호명되었다. 특히 이순신은 많은 작가들에 의해 소설의 주요 소재로도 다루어졌는데, 대표 저자로 신채호, 박은식, 이광수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신채호와 이광수의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소설이 일제 강점을 전후한 시기에 지식인들이 위인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 담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신채호는 역사전기

2)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에 빠지다』, 삼인, 2011, pp.229-230.

3) 이러한 문화사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는 대표적 연구는 이지원의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혜안, 2007)가 있다. 그는 한말부터 일제하에 걸쳐 전개된 문화사상을 지식인이 제출한 민족문화론과 그들의 실천에 초점을 두고 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본고가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을 문화사적 맥락에 따라 읽어내는 데 단초를 제공한다.

4) 위인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 논의를 고찰하는 데는 역사와 전통을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헤게모니를 갖는 이데올로기로서 담론화하는 과정에 천착한 진경환의 「전통과 담론-전망적 요청을 겸한 단상」(『어문논집』61, 민족어문학회, 2010)과 윤영도의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 담론」(성공회대 동아시아연

소설을 통해 구한말 근대적 國性과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고자 전통의 근대적 전환을 통한 ‘국가정신=민족정신’을 고취해 갔다.⁵⁾ 반면에, 이광수는 『이순신』에서 묘사한 조선인의 性情과 『民族改造論』에서 논의한 조선민족성이 서술 방식 및 내용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1920년대 문화적 민족주의사상을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조선인의 열등한 민족성을 부각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안창호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설 『이순신』과 『민족개조론』의 관련성이 포착된다. 이렇듯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에 제출된 이들 작품은 각 시기에 지식인이 창출하고자 한 조선인상을 이순신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두 소설의 서사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행록』과 『난중일기』의 내용을 취사선택하며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그의 성정을 묘사한다. 또한 명나라와 일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작품 속 등장인물에 투영하며, 양국 민족의 모습을 상이하게 그리는데 가운데 조선인의 우월한 면과 열등한 면도 함께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신채호와 이광수는 이러한 전개 논리를 통해 역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강성을 발휘한 영웅·위인이 현재의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민족 고유의 역사적·정신적 유산이라는 인식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이 작품 안에서 그린 이순신상은 동일하지 않다.⁶⁾ 이

구소편,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 2009)의 연구에 주목할 것이다.

5) 본고가 신채호의 사상과 역사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하게 살핀 연구로는 김승환의 『단재 신채호의 문학사상과 문예반정』(『문학사와 비평』4, 문학과비평학회, 1997), 송백현의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삼지원, 1985), 신춘자의 『신채호의 소설연구 : <꿈하늘>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우남숙의 『신채호의 국가론 연구』(『한국정치학회보』32-4, 한국정치학회, 1999)와 『한국 근대사에서의 국가유기체설 수용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1999-33, 한국정치학회, 1999), 신복룡의 『신채호의 무정부주의』(『동양정치사상사』7-1,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08) 등이 있다.

들의 사상과 역사의식이 상이하며 두 작품이 제출된 시기와 연재된 매체가 다르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검열로 인해 애국계몽기에 비해 민족주의 이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1930년대는 군국주의 천황제 파시즘의 체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던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민족주의 이념을 우회적으로 반영하게 하였다. 신채호와 이광수의 작품 역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저술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이순신상은 시대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체의 경우 『대한매일신보』와 『동아일보』를 정치사상사적 맥락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 박찬승의 연구를 살펴보면, 지식인의 이념적 성향이 매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⁷⁾ 또한 국권

6) 신채호의 이순신상은 김현주의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인물 형상 연구-근대에서 탈근대 이행과 관련하여」(『한민족어문학』56, 한민족어문학회, 2010)와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어문학』105, 한국어문학회, 2009)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근대국민국가 확립에 대한 신채호의 열망과 구국의 영웅들의 성격을 규명하는 그의 연구가 신채호가 「이순신전」에서 그리고 있는 이순신상을 면밀히 살피는 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광수의 경우 그의 문학론에 토대로 두고 형상화한 이순신상에 대한 분석은 김지영의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한국문학이론과 비평』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에서 ‘정’의 개념을 참조하였다.

7) 『대한매일신보』는 신채호를 비롯해 양기탁, 장도빈 등이 실력양성을 말하면서도 국권회복을 위하여 실력양성보다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식, 국혼의 고취가 더 중요하다고 보며 선독립론과 국수보전론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개벽』과 함께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의 선전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매체로 신문화건설·실력양성론과 정신개조·민족개조론을 주요 기치로 삼으며 ‘선민족개조 후독립’과 ‘선실력양성 후독립’을 표방하며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광수는 송진우, 장덕수, 이상협, 진학문, 장덕준, 김양수와 함께 문화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제기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p.83, p.167, p.197, p.302 참조)

상실의 위기와 조국독립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 그들의 사상과 역사의식이 반영된 민족주의 이념은 역사소설의 성격을 결정짓는 데 그 어떤 요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신채호와 이광수가 문학작품을 통해 재현한 이순신은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이자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주의 이념을 문학적으로 실천해 간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광수가 이순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방식이 일본인이 제출한 日本人論 논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인 인식이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1907년 하가 아이치(芳賀矢一)의 『國民性十論』과 일본의 대표적 근대 종합잡지인 『太陽』에서 열등한 조선인과 우월한 일본인을 짝패로 두고 두 나라의 민족성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는 이후 일본인에 의해 생산된 근대 일본인론의 토대가 된다.⁸⁾

본고에서는 우선 근대 초 지식인들이 위인에 주목한 이유를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 창작에 영향을 끼친 위인선양론을 통해 살펴본 후 역사적 사실과 상상적 허구에 선택과 배제의 원리를 적용하며 만들어 간 이순신의 형상과 타자인식에 천착하여 신채호와 이광수가 이순신을 통해 재현한 조선인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방법⁹⁾을 규명

8) 이선이, 『근대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논의』, 이선이 외, 『동아시아 근대 한국인론의 지형』, 소명, 2012, p.17.

9) 한국인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자로 이선이를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선이의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담론 비교』(『비교한국학』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이선이·이준태의 『근대 초 조선 민족성의 담론 형성의 배경과 논의 방식』(『비교한국학』18-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이선이 외의 『동아시아 근대 한국인론의 지형』(소명, 2012) 등을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방법을 규명하는 데 참조할 것이다. 특히 사회진화론·민족심리학이 한국에서 민족성 개조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과정과 국가유기체론이 근대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국민성담론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이선이·이준태의 연구와 타자와

해 보고자 한다.

II. 위인선양론과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 창작 배경

근대 초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적인 국가관과 유교적 충신론의 결합을 통해 자강적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위인선양론을 이러한 논리를 구성하는 주요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과거 역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강성을 발휘한 영웅과 위인이 현재의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민족 고유의 역사적·정신적 유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¹⁰⁾ 지식인들이 위인선양론에 주목한 이면에는 과거의 기억을 호출해내어 민족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의 공동체는 현실 속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과거의 기억들을 불러내어 그로부터 우리들의 비위진 기억을 연속적인 자아를 상상하는 것을 통해 채우려고 한다.¹¹⁾ 한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이다.

근대국민국가로의 이행을 주요 과제로 여겼던 지식인들은 역사와 전통을 중심으로 국민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역사’가 과거의 기억들로 구성된 서사체계라면, ‘전통’은 통시적으로 하나의 연속적인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해 호출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 전반을 의미한다.¹²⁾ 일제강점을 전후한 시

대면한 한국인이 자기인식을 구축하는 방법에 천착한 이선이의 논문은 신채호와 이광수가 작품을 통해 재현한 이순신상과 조선인상 분석에 단초를 제공한다.

10)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pp.364-365.

11) 진경환, 「전통과 담론-전망적 요청을 겸한 단상」, 『어문논집』61, 민족어문학회, 2010, p.401.

12) 윤영도, 「냉전기 국민화 프로젝트와 ‘전통문화’ 담론」,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기에 지식인은 자강적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배양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 즉 위인을 호명하는 방식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만들어 갔다. 신채호와 이광수 역시 사설을 통해 이를 실행해 갔으며, 이러한 사상가로서의 실천은 이들이 창작한 위인전에도 반영되었다. 이들의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은 그 대표작으로 근대 초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문화사상의 영향하에 창작되었다. 신채호의 『이순신전』이 애국계몽기 국가자강사상과 관련이 있다면, 이광수의 『이순신』은 1920년대의 민족주의 민족문화론과 1930년대의 민족주의 문화운동론과 결부되어 있다.

신채호가 『이순신전』을 창작했던 애국계몽기의 경우, 지식인들은 조선인이 대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응하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키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봉건적인 사회체제를 지양하며 근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강’을 이념으로 한 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여 다방면으로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식인을 중심으로 출판·국문·교육·학회분야에서의 문화운동을 통한 개화자강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고 독자를 교양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설문학이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반외세 애국투쟁을 고취하고 문명개화를 주장하는 문학작품들도 대거 산출되었다.

개화자강운동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은 외국의 역사적 영웅들을 다룬 작품을 다수 번역·번안하였다. 대부분은 부국강병의 영웅이나 외적의 침략에서 조국을 수호한 민족영웅의 이야기로 외세의 침략에 맞선 약소민족의 저항을 다루면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실력양성론이나 점진적 문명개화론의 입장에서 비스마르크, 피터 대제의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연구, 2009, p.226.

전기 등이 소개되었다면, 비타협적인 애국계몽운동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거나 조국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던 잔다르크, 빌헬름 텔, 마치니 등 민간 영웅들에 대한 전기물이 소개되었다. 이들의 영웅에 대한 관심은 을지문덕·이순신·최영 등 외세의 침략을 막은 민족의 역사적 영웅을 소재로 한 역사전기소설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지식인들은 외래 침략자를 격퇴하고 민족 존엄과 조국 독립을 수호하는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충성스러운 명장들의 투쟁에 관한 실제 기록을 통해 민중들에게 반외세의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¹³⁾

신채호는 박은식과 함께 단군 중심의 건국신화 강조, 민족적 영웅에 대한 전기 집필, 민족을 중심에 둔 새로운 역사읽기 등을 통해 강인한 민족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량치차오(梁啓超)가 지은 『伊太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한 이후에는 역사·전기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순신을 필두로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등을 통해 구국의 위대하고 순결한 영웅의 모습을 작품 안에 담아냈다.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영웅은 그의 영웅사관이 민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도자의 우상화’¹⁴⁾와는 거리가 멀다. 송백헌은 “그의 영웅 출현에 대한 열망은 왕조 시대의 유물인 왕조사관이나 영웅사관에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기초는 민중사관이나 민족사관에서 찾을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이러한 신채호의 영웅사관은 영웅주의와 역사학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¹⁶⁾ 그는 역사를 ‘아

13) 김재용 외, 『한국근대 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pp.71-74.

14) 이순신은 민중주의가 아닌 영웅주의 입장에서 역사를 볼 경우 지도자의 우상화 과정에 이용되었다.(신복룡, 『신채호의 무정부주의』, 『동양정치사상사』7-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p.88 참조)

15) 송백헌,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p.65.

16) 신복룡, 위의 논문, p.87.

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¹⁷⁾으로 보았는데, 이는 청나라 말기 옌푸(嚴復)의 천연론과 량치차오의 변법자강론 등을 통해 소개된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¹⁸⁾의 수용에서 비롯되었다.¹⁹⁾ 이들 사상은 그가 『乙支文德』, 『李舜臣傳』, 『東國巨傑 崔都統』을 통해 민족자강과 애국심의 중요성을 역설해 갈 강인한 민족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²⁰⁾

이렇듯 구한말 신채호를 위시한 지식인들은 영웅과 민족의 혼²¹⁾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문학적 실천으로 연결시켰으며, 이렇게 창작된 소설이 대중에게 읽혀지는 것을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계몽의 방편으로 여겼다.²²⁾ 그리하여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등은 당대 신소설이 상업적이며 친일적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의식하

17) “<…>무엇을 『我』라 하며 무엇을 『非我』라 하느냐? 깊이 팔 것 업시 얹치 말하자면 무릇 主觀의 位置에 쓴 자를 我라 하고 그 外에는 非我라 하나니 <…> 歷史는 我와 非我的 鬭爭의 記錄이니라.”(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 신채호 전집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5)

18) 사회진화론은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극제가 되는데, 특히 교육과 계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 일본의 사회진화론적 인종주의가 한국에 유입되면서 민족성 개조론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이선이·이준태, 『근대 초 조선민족성 담론의 형성 배경과 논의 방식』, 『비교한국학연구』18-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p.272 참조)

19) 신춘자, 『신채호의 소설연구 : <꿈하늘>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p.283.

20) 김현주는 신채호가 위인전기역사소설을 통해 근대국민국가 확립에 대한 열망을 그려냈음을 밝힌 바 있다.(김현주, 『망명 이후 신채호 소설의 인물 형성 연구-근대에서 탈근대 이행과 관련하여』, 『한민족어문학』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p.368 참조)

21) 민족혼 혹은 민족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독일의 민족심리학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유입된 후 조선민족성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이선이·이준태, 위의 논문, 2010, pp.273-275 참조)

22) 김승환, 『단재 신채호의 문학사상과 문예반정』, 『문학사와 비평』4, 문학사와비평학회, 1997, p.20.

고, 이의 대척적 위치에서 그들의 애국독립사상을 위인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을 통해 구현하였다.²³⁾ 이들에게 있어 신소설은 영웅전기와 연의소설류를 가리키는데, 서사적 골격은 전통적인 한문학의 한 장르인 ‘전’의 구조를 따르며 서술적 방식은 애국계몽기에 널리 확대되기 시작한 논설 방식을 활용하였다.

근대적 역사소설의 등장은 3·1운동이라는 대중적 역사체험을 통해 민족과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서 인식하게 된 1920년대에 들어서야 가능하였다. 이러한 인식들이 구체적인 사회운동의 모습을 띠게 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수많은 역사물과 역사소설이 출현했으며, 민족주의 민족문화론의 영향을 받은 역사소설도 창작되었다.²⁴⁾ 이후 1930년대 민족주의 민족문화운동론은 일본의 대동아공영의 논리 속에 일정 부분 포섭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파시즘적인 국가주의를 찬양하고 문화적·종족적 의미의 민족문화를 강조한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 말 일본의 국가주의·국민주의 틀 안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재규정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끼쳐 1930년대 후반 대거 쏟아져 나온 역사소설들이 엄혹해진 상황 속에서 현실도피로써 오락성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하였다.²⁵⁾

한편, 이 시기에는 부르주아적 의식과 ‘조선적인 것’의 결합을 통해 조선의 지도원리를 창출할 것을 주요 목표로 한 ‘문화혁신론’도 대두되었다. 그 일환으로 1930년 봄부터 『동아일보』는 역사적 위인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

23) 최경호, 『역사소설 연구-신채호, 김동인, 안수길의』, 『한국어문연구』9, 한국어문연구회, 1995, p.227.

24) 이광수의 『단종애사』(『동아일보』, 1929)와 홍명희의 『임격정』(『조선일보』, 1928~1940)이 대표적인 예이다.

25) 김재용 외, 앞의 책, p.504.

전운동을 통해 민족의식 고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위인선양과 고적보존운동의 효시를 이루며 가장 활발히 전개된 것이 이순신의 유적보존운동이었으며,²⁶⁾ 이는 위인 소재 역사소설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이순신을 비롯하여 세종대왕과 수양대군이 재조명되었으며, 이들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광수의 『이순신』은 당대 대표적 역사소설로, 그가 1920년대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다. 이광수는 1931년 『삼천리』에 “『이순신』과 『단종애사』를 조선 민족의 長·短點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作品”으로 상정하고, 『단종애사』가 “因果觀的 小說”, 『이순신』이 “民族의 長·短點 探究小說”임을 밝힌 바 있다.²⁷⁾ 이는 곧 『민족개조론』에서 조선인의 성격을 “根本的 性格”과 “附屬的 性格”으로 분류하고,²⁸⁾ “부속적 성격”이 계몽을 통해 바뀔 수 있다²⁹⁾고 주장한 민족성 논의 방식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자 이광수가 역사소설을 통해 조선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했음을 파악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듯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영웅·위인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창출되고 제조된 인물로서 한 민족 집단에게 타자와의 차별성을 증명하는 존재이자 민족의 단결, 단합을 고취하는 데 유효한 주제였던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대한 차별성과 민족 내부의 단결을 고취하고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강조할 때마다 전통 재현의 소재로서 위인이 재등장하였다.³⁰⁾ 신채호와 이광수 또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타자와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26) 이지원, 앞의 책, pp.316-317.

27) 김팔봉, 「작품해설」, 이광수, 『이광수전집5』, 삼중당, 1971, p.599 참조.

28)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제3권 23호, 1922, pp.38-39 참조.

29) 이광수, 위의 글, pp.45-46 참조.

30) 이지원, 위의 책, p.164 참조.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궁극으로 지향하며 위인전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해 갔던 것이다.

Ⅲ. 전통의 전유를 통해 본 이순신의 형상화와 조선인상

전통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어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욕망의 표현, 곧 현재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상상된 문화의 총체라 하겠다.³¹⁾ 이러한 문화적 총체로서의 전통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전통을 호명하는 주체의 의도에 따라 상상되는 정체성의 성격 또한 달라진다. 이처럼 주체의 의도에 따라 호출된 전통은 정체성의 성격을 결정짓고, 동시에 선택된 전통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은 주체로 하여금 다시 상상하고 사유하게 한다. 특히 과거의 기억들로 구성된 서사체계인 ‘역사’가 이러한 담론을 주도해 갈 때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진리성을 확보하여 헤게모니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³²⁾ 이러한 점에서 신채호와 이광수의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은 신문에 게재된 그들의 사설만큼이나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을 것이며, 더욱이 대중성까지 확보하고 있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컸을 것이다.

신채호와 이광수의 작품은 위인이나 유교, 즉 전통의 전유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실천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위인이 역사

31) 진경환, 앞의 논문, p.397.

32) 역사적 사실이 담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아일보』가 과거 역사 신물의 실제적 증거로서의 위인 유적이 대중선전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1931년 봄부터 민족의식 고양운동을 조선의 역사적 위인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운동을 통해 전개하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지원, 앞의 책, p.317 참조)

적 사실로써 전통담론의 우위를 접하려는 목적으로 시대적 요구에 의해 호출되었다면, 유교는 근대국민국가 이행과정에서 선택과 배제가 무수히 반복되었다. 신채호와 이광수 역시 사설은 물론 역사소설을 통해서도 이를 실천해 갔으며, 그 결과물은 이들이 전통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신채호는 문학과 사회, 작품과 작가, 삶과 죽음 등이 대립적인 것이 아닌 민족이라는 근본 원리의 단순한 변용에 불과하다고 보는 일원론을 가지고 있었다.³³⁾ 국가 상실 혹은 위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민족=국가’라는 단 하나의 가치를 지향했던 것이 바로 신채호의 일원론으로, 이를 통해 그는 국가, 민족, 문학 등을 하나의 동체로 파악하며 문학적으로 실천해 갔다.³⁴⁾ 『이순신전』은 그 대표작으로 “역사를 통한 애국심”에 의해 ‘민족=국가’의 형성이 가능하다³⁵⁾는 그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소설이라 하겠다. 신채호에게 있어 국가란 전제군주하에서 개개인의 인격을 포괄하는 하나의 정신적 집합체 단위인 유기체적 국가³⁶⁾를 말한다. 그는 국가가 망해도 ‘민족정신’의 보존과 배양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 실천론이 ‘新歷史’, ‘완전한 歷史’의 서술과 함께 역사교육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배양이었다.³⁷⁾ 1907년 11월 대한자강협회를 개편한 대한협회

33) 김승환, 앞의 논문, p.13.

34) 김승환, 위의 논문, p.14.

35) 우남숙, 「신채호의 국가론 연구」, 『한국정치학회보』32-4, 한국정치학회, 1999, p.22.

36) 국가유기체론은 근대적 국가론을 체계화한 독일의 법학자 블룬칠리의 저서가 량치차오에 의해 『국가론』(1899)으로 번역되어 중국에 소개된 후 국민의 자각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논리를 확산시킴에 따라 새로운 국민성 개발을 통한 근대국가 만들기 기획은 동아시아 전체에서 국민성담론의 확산을 가져왔다.(이선이·이준태, 앞의 논문, p.275 참조)

37) 우남숙, 「한국 근대사에서의 국가유기체설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1999-33, 한국정치학회, 1999, p.22.

에 동참했던 그는 기관지 『대한협회보』에 1908년 5월 26일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라는 글을 게재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³⁸⁾ 한말 국민통합을 목표로 국조·국사·국어·국문·위인선양을 통해 근대적 국성과 애국주의를 고양하고자 했던 국수적 문화인식론이 신채호의 역사전기소설 창작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채호가 민족을 경쟁의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순신전』은 사회진화론의 연장선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는 1909년 7월 『대한매일신보』에 『신국가 관념의 변천』을 게재하여 ‘가족’과 ‘민족·국민 국가’를 동질로 상징하며 생존 경쟁의 단위로 파악하였다.³⁹⁾ 민족을 주체로 한 새로운 역사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讀史新論』에서도 동국 민족(한국 민족)을 선비족, 부여족, 지나족, 말갈족, 여진족, 토족으로 대별한 후 여섯 민족을 통합체 대신 경쟁 체제로 인식하였다.⁴⁰⁾ 아울러 자민족국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국수적 문화인식이 사회진화론적인 자강과 문명개화를 추구하고 있는 형성된 전통인식이었다⁴¹⁾는 점에서 사회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는 그의 역사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이순신전』에서 신채호가 세계 여러 나라의 수군 가운데 비견할 만한 영웅으로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을 들며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 글로, 사회진화론에 의거하고 있는 신채호의 역사의식을 포착할 수 있다.

38) 한영우, 『한국사 인물 열전』, 돌베개, 2003, p.71.

39) 박노자, 『1900년대 초반 신채호의 민족, 국수 개념의 계보와 지역적 맥락』,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사, 2010, pp.85-86.

40)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讀史新論』, 『단재 신채호 전집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5 참조.

41) 이지원, 앞의 책, p.364 참조.

余는 竊想컨디 乃利孫으로 扈여금 敵兵이 國을 已破호 時를 當호야 此等 煩惱를 受호면 其功을 能成홀가. 此는 猶是快斷치 못홀 問題라 扈려니와 <…> 嗚呼라, 英雄의 名譽가 恒常 其國의 光靈을 隨호야 高下호는 비 아닌 가.⁴²⁾

넬슨이 이순신보다 문명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높이 평가받는다든 신채호의 주장에서 보듯 그가 이순신을 영웅으로 형상화한 의도 안에는 사회 진화론적인 자강과 문명개화를 추구하며 형성했던 전통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인식에 토대하여 창작한 소설을 통해 사회 진화론적인 국가관과 유교적 충신론을 결합하여 자강적 국가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신채호가 규정하고 있는 영웅이 ‘세계를 창조한 성신’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전환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강만길은 애국계몽운동이 국민주권주의운동의 성격을 띠어감에 따라 신채호가 영웅과 더불어 국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초인적 존재로서의 영웅이 국민적 영웅으로 교체된다고 밝힌 바 있다.⁴⁴⁾ 신채호가 이순신을 필두로 시대의 상징적인 영웅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목적이 강인한 다수의 국민 창출에 있다는 주장이다.⁴⁵⁾ 따라서 신채호가 국권상실의 위기에 봉착한 조선의 모습을 사회진화론적 관점과 유교적 충신론에 근거

42)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 신채호 전집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p.532-533.

43) 이와 관련된 논의는 신채호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英雄과 世界』(1908.1.4, 1.5)와 『20世紀 東國之英雄』(1909.8.17)을 참조.

44) 강만길, 『신채호의 영웅·국민·민중주의』,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1986, p.306.

45) 이에 대해 김현주는 신채호의 소설 속 육체적 싸움에 놓인 구국의 영웅들이 단순한 승배의 대상이기보다는 국민적인 모델로서의 영웅으로 호출되었던 것임을 밝힌 바 있다.(김현주, 『신채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어문학』105, 한국어문학회, 2009, pp.309-310 참조)

하여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유교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신채호가 이순신을 통해 재현한 조선인은 어떠한 성정을 지녔을까?

신채호는 소설에서 이순신을 정점에 두고 조선, 명, 일본을 대비해서 그리는 서사 재현 방식을 취한다. 그는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와 침입자 일본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론과 결론에서 작품을 저술한 의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랜 원수’를 ‘왜구’로 칭한 그는, 일본과 대적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임을 서론에서 밝히고 있으며, 결론에서는 이순신과 같은 성정을 지닌 인물이 출현하기를 역설한다. 다음은 국민적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신채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글로, 전 조선인이 영웅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의 심정을 담고 있다. 더욱이 서론과 결론을 논설체로 서술함으로써 계몽지식인의 뚜렷한 신념과 결연한 어조가 부각된다.

悲夫라 <…> 리純臣의 出現은 時代는 儒衣가 滿國하고 淸談이 盛行할 뿐더러 又是 自家父祖가 世世 儒者門庭中 人物이니 <…> 安能容易自拔하리오.⁴⁶⁾

신채호는 유림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에 출세한 이순신이 “卑劣의 奴輩가 朝廷에 充斥”했지만 “剛直과 謹慎으로 自守”한 자이자 “大奮鬪 大忍耐하는 英雄의 人格”을 갖춘 인물이었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⁷⁾ 이와 동시에 “太平時代에 增兵何爲오 하더라”했던 이일의 대척적 위치에 이순신을 둔 후 “此雖 小戰이나 其 先見과 毅力이 可想

46)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 앞의 책, p.495.

47)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 위의 책, pp.495-496 참조.

이니”라며 이순신을 찬양한다.⁴⁸⁾ 이처럼 신채호는 이순신과 조선 관료들의 모습을 대비함으로써 이순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이와 더불어 명나라 장수 진린과 이순신의 성정을 비교하는 가운데 명나라 병사들이 이순신을 더욱 두려워하고 사랑한다고 서술함으로써 이순신의 영웅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然이나 陳璘은 元來 粗猛善怒호 聞호는 者라 <…> 此後로 明兵이 犯호면 리순臣이 此를 嚴治호니, 於是에 百姓이 安堵호를 得하고 明兵이 리순臣을 畏愛호기를 陳린에 過호더라.⁴⁹⁾

이순신을 정점에 두고 조선 관료와 명인을 대조함으로써 서론과 결론에서 언급했던 이순신의 영웅다움이 강화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신채호가 이순신을 통해 강조하고 근신하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진 건장한 조선인을 창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채호가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위인을 애국심과의 관계를 통해 논의했던 것과는 달리 이광수는 민족개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도구로써 활용한다. 이광수는 역사 속에서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思想의 內容, 感情의 傾向’이 변했듯 민족성 역시 개조될 수 있다고 보며, 조선인의 ‘情神의 變化’에 ‘民族改造의 意義’가 있음을 『민족개조론』에서 밝힌 바 있다.⁵⁰⁾ 따라서 이광수의 이순신이 일본인과의 차별성을 증명하고, 민족 내부의 단결을 고취하며 근대적인 민족의식을 강조할 때마다 전통 재현의 소재로서 재등장했던 신채호의 위인과는 다소

48)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앞의 책, p.497 참조.

49)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위의 책, pp.520-521.

50) 이광수, 앞의 글, pp.19-20 참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에게 있어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열등한 조선 민족성이 개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조선인의 전범이다. 이러한 이순신은 그의 문학론에 근거하여 형상화한 인물로 신채호가 그려낸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 이광수의 이순신상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학론의 토대인 ‘정’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文學이란 何오」(『매일신보』, 1916)에서 근대문학이 반드시 ‘情’에 토대를 두어야 함을 역설하며, 소설 『무정』(『매일신보』, 1917)을 시작으로 이를 실천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정’ 개념은 외적인 도덕 가치로부터 ‘독립’해 있는 감정의 영역을 특수화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이 사회의 도덕과 가치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도록 만들어 주는 내적 동력으로 설명되기도 하는 양가적인 특성을 보인다.⁵¹⁾ 이광수가 이순신을 눈물이 많은 감상적인 인물로 그리거나 조선인을 계몽하는 인물로 묘사한 장면에서 ‘정’의 양가성이 포착된다. 이광수가 ‘정’을 “계몽의 원천”이자 “계몽의 대상”⁵²⁾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가 문학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이 ‘知情意’로 작용한다고 보고, ‘知’로 작용하는 과학 등의 물질문명과 비등하게 ‘情’의 가치 역시 중요하며 ‘情’의 요소를 지닌 문학을 정신문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규정한 데에서도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이는 이광수의 문학론이 지식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질문명과 함께 정신문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며 만들어 갔던 계몽담론의 연장선에 있음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그가 ‘지정의’ 논의를 통해 조선(인)이 열등하다고 주장한 ‘文學과 民族性’⁵³⁾을 논의한 글에서도

51)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82.

52) 김지영, 위의 논문, p.82.

계몽담론과의 관련성이 포착된다. 이렇듯 이광수의 문학론은 1910년대 일본이 생산한 문명론의 논리를 수용하여 물질문명을 우선시했던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순신』은 문학을 정신문명의 대표이자 민족성의 근원으로 파악한 이광수의 대표작이라 하겠다.

김윤식은 이광수의 문학론이 문학의 독자성이나 ‘정’의 독립성을 발전시켜 나가기보다 민족의 지도자요 문명비평가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더 골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의 문학론이 민족 계몽의 한 발판이자 그의 이념을 드러내는 논설의 대응으로 규정할 바 있다.⁵⁴⁾ 이를 실천한 작품이 바로 『이순신』임을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조선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숭배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으로 李舜臣이요, 하나는 이제 사람으로 安島山입니다. 나는 七, 八 年前에 <先導者>라는 소설을 쓰다가 말았거니와, 그 主人公이 安島山인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이제 <李舜臣>을 쓰니 결국 나는 내 愛人을 그리는 것입니다. <…> 내가 李舜臣을 그리거나 安昌浩를 그리거나, 결국 人格程度 以上을 넘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나 以上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내 힘을 다하여서 내 愛人을 그릴 뿐입니다.(下略)(『三千里』, 1931년 7월)⁵⁵⁾

53) 이광수는 “朝鮮人”을 “中國 道德과 中國 文化下에 生育한 者”로 정의하며, “中國人의 一模型”으로 “漢子, 漢文만 是崇하고 中國人의 思想을 脫할 줄을 不知”한 민족으로 그린다. 이렇듯 이광수는 한국 문화 내에 근대성이 부재한 것으로 인식하며 조선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그려갔으며, 조선인이 우월한 민족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문화, 즉 신문명을 수용하여 새로운 정신문명을 문학을 통해 창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이광수, 『文學이란 何오』, 『이광수 전집(1)』, 삼중당, 1971, p.551 참조)

54) 김윤식, 『한국 신문학 초창기의 문학론과 비평의 양상(상)』, 『현대문학』217, 현대문학사, 1973, pp.292-298.

55) 김팔봉, 앞의 글, 이광수, 앞의 책, p.600.

이렇듯 이광수는 조선의 ‘先導者’로 지목한 이순신과 안창호를 인격적으로 완전한 인간, 즉 민족의 우월한 면만을 성정으로 지닌 대표적 인물로 규정한다. 결국 이광수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을 통해 안창호를 위인으로 호출했듯이 1930년대에는 이순신을 역사소설을 통해 위인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과 안창호의 관련성은 당포승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다음 이순신의 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째로, 그동안 백성들이 적병에게 시달리고 애졸하던 것을 위로하고, 둘째로, 농사하는 자는 농사에 힘쓰고 고기잡이하는 자는 힘써 소금을 구워 양식을 많이 저축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셋째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아니 하였으니, 항상 적병이 오나 조심할 것과 적병이 보이거든 곧 주사에 알릴 것을 말하고, 넷째로, 싸움이 오래 끌면 장정들은 군사가 되어야 할 터이니, 평소에 활쏘기와 배젓기와 헤엄치기 같은 재주를 많이 배워 둘 것을 말하고, 끝으로,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백성의 기운에 있으니 결코 마음이 죽지 말고 누가 나를 당하겠느냐하고 기운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였다.⁵⁶⁾

이순신은 조선인들에게 각자 자신이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다하고 충의를 지키며 용맹할 것을 부탁한다. 이는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조선 제일의 단체로 규정한 청년학우회의 기본 정신인 ‘務實·力行·忠義·勇敢’과 의미가 일치한다. 이순신은 이러한 정신을 성정으로 가진 인물로 실력양성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한 민족성을 배양하자는 이광수의 계몽사상가로서의 문학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그가 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했던 조선인은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용기를 가진 인물이라 하겠다. 이처럼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조선 제일

56) 이광수, 『이광수전집5』, 삼중당, 1971, p.213.

의 단체로 규정한 청년학우회의 기본 정신인 ‘무실·역행·충의·용간’을 이순신의 성정으로 그린 후 조선인이 이를 내면화하기를 기대하며 이순신의 입을 빌려 설파하는 장면을 통해 “개인이 사회의 도덕과 가치에 자발적으로 복무하도록 만들어 주는 내적 동력”이라는 ‘정’의 개념으로 이순신상이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광수는 조선인의 당파심과 사대심을 야기한 유교를 제거해야만 열등한 민족성이 개선되어 우월한 민족성을 가진 조선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시사해 왔다. 우유부단한 왕과 이기적인 대신들의 모습,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도 당파싸움을 하는 대신들의 모습, 사대심만 가지고 있는 왕과 조정대신들의 모습 등과 같이 유교적 전통을 중요시하는 왕과 대신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인의 열등한 민족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유교의 상징인 ‘종묘 신주’를 까맣게 잊고 버려둔 채 간다거나 왕의 행렬 가장 앞에 세운다, ‘종묘 신주’에 특별히 예를 오래 갖추던 시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 틈날 때마다 당파싸움을 한다는 등의 묘사를 통해 유교를 부정적으로 서술한다. 또한 이광수는 왕과 조정 대신뿐만 아니라 장수를 통해서도 열등한 조선인상을 보여준다. 전투에서 살기 위해 왜군의 옷으로 비껴 입은 이언함, 공적만 쫓는 원균,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만 일삼는 김명원 등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조선인을 충성심과 애국심이 없으며, 비열한데다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광수는 왕과 조정 대신 대부분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과는 달리 유성룡을 충성심과 애국심이 많으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유일한 인물로 그린다. 이와 동시에 그는 유성룡을 왕과 다른 조정 관료들처럼 명을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할 유일한 나라로 여기는 인물로도 묘사한다. 이처럼 그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시선으로 유성룡을 표현함으로써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며 추종했던 조선인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광수의 유

교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 유성룡이 명나라 군사에게 멸시를 당하는 장면과 군광 거행을 태만하게 한 죄로 명나라 군사들에게 붙잡혀 온 호조 판서 이성웅과 경기감사 이정형이 몰매를 맞은 유성룡을 보자 그 자리에서 함께 통곡하는 장면에서 “이러고도 이 무리들은 마침내 명나라에 의지하는 사대심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서술에서 이광수의 이러한 성향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유성룡을 포함한 조선의 왕과 조정 대신들을 향해 “이것은 조선 민족의 성격은 아니다.”며 그들의 성격이 조선인의 ‘근본적 성격’이 아님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강조한다.

이제 임진강을 지키는 데도 이 무리들의 하는 일은 그들의 성격(이것은 조선 민족의 성격은 아니다. 조선 민족 중에는 이순신 같은 사람도 있지 아니 하나)을 유감 없이 폭로시킨 것이다.⁵⁷⁾

이광수는 위 인용문을 통해 이순신만이 조선인의 고유한 성정을 가진 유일한 인물임을 강조하며 유성룡이 인물됨은 훌륭하나 유교적 전통을 중요시하여 조선인의 고유한 성정을 가질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이광수는 왜군 침범 후 우유부단한 선조,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조정 대신, 도망만을 일삼는 용렬한 장수 등으로 인해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더욱 유린된 조선인을 걱정하고 있는 이순신을 눈물이 많은 감상적인 인물로 표현한다.

밤에 혼자 있을 때에는 밤이 깊도록 혼자 울고<…>순신은 원래 귀신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때부터[백의종군 후-인용자주] 하늘에 비는 습관이 생겼다.<…>순신의 앞길에는 오직 실패가 있을 뿐이요, 죽음이 있을 뿐이요,

57) 이광수, 앞의 책, pp.220-221.

그 뒤를 이어서는 조정의 모함과 욕설과 모욕이 있을 뿐이었다.⁵⁸⁾

위 인용문의 이순신이 바로 “외적인 도덕 가치로부터 ‘독립’해 있는 감정
의 영역을 특수화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에 근거하여 탄생한 인물이다. 이
광수는 “울고” “하늘에 비는” 이순신의 모습에 그의 인간적인 면만을 담으
려고 한 것은 아니다. “조정의 모함과 욕설과 모욕이 있을 뿐”이라는 서술
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시대의 부패한 정치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써 그
만의 독창적인 이순신상을 만든 것이다. 이어서 이광수는 열등한 조선(인)
대 우월한 일본(인)이라는 이분법적 논리 속에 이순신을 불운한 위인으로
상정하고 동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때에 적을 보면 달아나거나 적에게 항복한 무리들이 다 정권을 잡아 삼
백년 호화로운 꿈을 꾸는 동안에 조선의 산에는 나무 한 포기 없어지고 강에
는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어리석고 가난해졌다.

그가 돌아간 지 삼백 삼십 사년 사월 이일에 조선 오백년에 처음이오, 나중
인 큰 사람 이순신(충무공이란 말을 나는 싫어한다. 그것은 왕과 그 밑에 썩은
무리들이 준 것이기 때문에)의 슬픈 일생을 그리는 붓을 놓는다.⁵⁹⁾

결국 이광수는 이순신처럼 우월한 성정을 가진 인물이 조선에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유교적 전통을 따르는 조선에서는 더 이상 국민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며, 우월한 성정을 지니고 있는 조선인의 장점도 충
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이순신』을 통해 표명하며 글을 마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신채호는 이순신을 국민적 영웅으로 그렸으며, 그
를 통해 강직하고 근심함은 물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진데다

58) 이광수, 앞의 책, p.309.

59) 이광수, 위의 책, p.336.

건강하며 민족자강사상과 애국심을 가진 한국인을 창출하고자 하였다. 결국 신채호는 한국인이 유교적 전통 요소인 충을 계승함으로써 민족국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작품을 통해 역설해 갔던 것이다. 한편, 이광수는 이순신을 영웅보다는 ‘정’이 있는 위인으로 묘사하며 이순신이 가진 훌륭한 성정을 조선인의 ‘근본적 성격’, 사대심·당파심과 같이 유교적 전통에 근간을 둔 조선인의 성정을 ‘부속적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조선인의 고유한 민족성인 ‘근본적 성격’은 계승해 가야하며, 열등한 민족성은 우월한 민족성으로 개조되어야 함을 역사소설을 통해 설교하였다.

IV. 타자인식을 통해 본 자기인식 구축 방법

한국인의 자기인식은 조선의 개항과 함께 들어온 제국 일본을 비롯해 서구 열강과 대면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인은 타자와 자신의 차이를 구별하는 심리적 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갔다.⁶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타자의 시선에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타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존의 인식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 흡수되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구축해 놓은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담론에 상당 부분 포섭되었다.

60) 이선이는 ‘민족’ 개념의 발생론적 기원 문제나 민족성이라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 규명이 나와 다른 담론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촉발한 타자화된 자기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민족’이 개항 이후 한국인 자신과 다른 타자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된 자기인식의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있다고 하였다.(이선이,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담론 비교』, 『비교한국학』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p.447 참조)

신채호와 이광수의 이순신 소재 역사소설이 출현했던 시기는 조선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 중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국가건설과 조국독립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 타자의 시선이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적극 개입했던 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채호와 이광수의 작품에는 이들의 사상과 역사의식은 물론 타자에 대한 인식과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들어 간 한국인(조선인)의 자기인식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설 안에 등장하는 명인, 일본인, 조선인은 단순히 문학적으로만 재현된 허구적 인물이 아닌 신채호와 이광수가 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그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성정은 한국인에 의해 재생산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들 소설 안에 그려져 있는 조선인의 성정은 명인과 일본인을 인식하며 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인이 자신과 다른 타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경험하며 도출된 자기인식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신채호와 이광수는 명인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을 조선인상에 고스란히 투영한다. 이들이 명나라 장수와 병사, 조선 대신들, 왜군을 묘사한 장면에서 상이한 조선인상을 읽어낼 수 있다. 신채호는 명나라 장수 진린과 병사를 탐욕스럽고 비열하게만 묘사하지 않으며, 조선 대신들도 당쟁만 즐기고 겁이 많은 인물로만 표현하지 않는다. 이순신이 통제사로 재부임한 후 노량대전에 참가하자 조정은 그를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도움으로 병사들의 사기도 더욱 진작되었다, “倭賊의 凶策”으로 인해 통제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지만 정탁, 이원익, 유성룡의 도움으로 다시 복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원균의 모함으로 이순신이 통제사 자리를 물러나던 순간에 정탁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순신을 변론해 주지 않았다는 이광수의 서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 이광수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반 이후부터 명나라 장수

와 병사를 식탐이 많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민족, 겁이 많고 비열하며 시기심이 많은 민족, 욕심이 많아 조선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부녀를 겁탈하고 행패를 부리는 민족 등으로 그린다. 결국 명인이 조선에 온 후 조선인들의 삶이 비참해졌으며, 더욱이 일본군이 점령했을 때보다 곤궁해졌다고 한다.

일본군이 서울에 있을 때에는, 혹은 딸을 팔고 혹은 젊은 아내를 팔아서라도 연명할 도리가 있었지만, 인제는 딸과 아내를 팔려 하여도 살 사람이 없었다. 밥 한그릇에 과년한 딸을 팔고, 옷 한 벌에 아내를 팔아 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부모가 죽어도 거상도 입지 아니하고 도무지 처자니 형제니 하는 생각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이러하건마는 명병만은 배고픈 줄을 모르고 날마다 술과 고기에 묻혀 지내었다.<…>명 나라 군사가 술이 취하여 길바닥에 토하여 놓은 것을 백성들이 다투어 훔아 먹고 힘이 약하여서 못 얻어 먹이는 곁에 서서 울었다.⁶¹⁾

이처럼 이광수는 굶고 있는 조선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명나라 병사들을 탐욕스러우면서도 몰인정한 군상으로 묘사한다. 게다가 조선의 상황이 일본인들이 있을 때보다 더욱 고달프고 피폐해졌다면 명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더욱이 조선의 왕과 조정 대신들이 사대심과 당파심만 가졌다고 서술하여 명이 조선인에게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나라임을 강조한다.

일본인을 달리 인식하며 만들어 간 한국인의 자기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채호와 이광수의 일본인 인식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 다음 세 개의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장과 왜군에 대한 묘사, 이순신의 아들

61) 이광수, 앞의 책, p.270.

면이 죽는 장면, 왜장이 화친을 구하는 장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왜장과 왜군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신채호의 경우 ‘흥괴가 가득한 가등청정과 소서행장’과 같이 왜장을 비열하게 묘사하거나, 풍신수길 이순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敬_호야 其頭를 叩_호며 恨_호야 其齒를 切_호며 其膽을 碎_호며 畏_호야 其辭를 卑_호는 故로”라고 표현하며, “將軍은 殆天神이라”는 편집자적 논평을 덧붙인다.⁶²⁾ 이처럼 왜군이 비열한 존재라는 신채호의 일관된 서술은 왜장을 용맹하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광수의 묘사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신채호의 작품에서는 이순신을 천신에 비유함으로써 비열한 왜군의 모습이 부각된다. 이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왜장을 묘사한 장면에서도 이들의 일본인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광수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왜장의 모습을 장엄하고 비장하게 그려냈다면, 신채호는 왜군을 거만하면서도 겁이 많은 인물로 상정하여 그들이 늘 도망치거나 전사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심지어 신채호는 당포전투에서 죽는 젊은 왜장을 그리면서 승리의 공이 모두 이순신에게 있다고까지 서술한다. 끝으로 조선인 포로를 심문했던 일본인을 묘사한 부분에서도 두 사람 간의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 이광수는 일본인을 용맹하고 인정이 많으며, 어리고 약한 조선인에게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인물로 표현한다. 더욱이 왜군에게 포로로 붙잡힌 적이 있는 조선 여인의 말을 빌려 일본인이 “키가 훌쩍 크고 기운이 세고 매우 잘났소.”⁶³⁾라고까지 서술한다. 이처럼 일본인이 훌륭한 성정만큼이나 준수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는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 이광수는 그들이 정신과 육체 모든 면에서 우월한 민족임을 역설한다. 반면에 신채호는 조선인 포로가 “倭賊將卒 등이 每樣 劔을 拔_호야 全羅道를 西指_호며 齒를 戰戰磨_호더라니”⁶⁴⁾라며 일본인들

62)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 앞의 책, p.511 참조.

63) 이광수, 앞의 책, p.203.

이 패배에 대해 분함을 감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공적을 시기하고 있음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이순신의 아들 면이 죽는 장면을 살펴보면, 신채호는 활과 칼로 홀로 대적하는 면을 향해 세 명의 왜군이 총을 난사한다고 서술한다. 면은 ‘어린 범[稚虎]’, 왜병은 ‘늙은 이리[老狼]’에 비유하며 “리統制의 第三子 勉이 拾數歲 不過 童子로 家에 在 扈야 騎射를 習 扈다가 倭兵의 欄入 扈을 見 扈고, 卽時 小砲를 放 扈야 三賊을 射殺 扈고 往來 馳擊 扈더니”⁶⁴⁾라며 어린 면을 총으로 사살하는 왜병을 비열한 인물로 그린다. 이에 반해 이광수는 면과 왜군 대장의 싸움을 일대일의 대결 장면으로 묘사함으로써 왜군 대장을 정의롭고 인간다운 면모를 지닌 인물이자 “얼굴이 희고 눈에 영채가 있고 키는 중키나 될, 날랜 듯한 사람”⁶⁵⁾으로 묘사한다. 면이 죽고 난 후에는 “『아깝다!』<…>『조선에 아직도 사람이 있다. 순신의 집은 습격하지 말고 돌아가거라.』하고 적도 죽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왜군 대장을 더욱 명예로운 사람으로 그린다. 이렇듯 이광수는 왜군 대장을 통해 일본인이 의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김은 물론 예를 갖추 줄 알며 외모까지 뛰어난 민족임을 시사해 갔다.

마지막으로 왜장이 화친을 구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신채호는 전투에 패배한 왜군이 생존을 위해 명과 화친하기를 바란다고 서술한 반면, 이광수는 왜장이 화친의 뜻을 내비치지만 명나라 왕과 장수가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신채호가 왜장을 용감하지 않아 나라에 대한 충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인물로 그렸다면, 이광수는 일본인이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어리석은 조선인과 거만한 명인으로 인해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는 내

64)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앞의 책, p.506.

65)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위의 책, p.518.

66) 이광수, 앞의 책, pp.321-322.

용을 암묵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진왜란 발발의 책임을 조선인과 명인에게 전가한다. 게다가 이광수는 일본인을 충성심과 애국심이 많으며 인정과 의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나고 비범하며 총기가 있는 인물로 그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일본인의 우월한 민족성은 명인의 비열하고 탐욕스러우며 겁이 많은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룸에 따라 더욱 부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명인과 일본인에 대한 신채호와 이광수의 인식이 조선인 인식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명인 인식이 조선의 유교적 전통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었다면, 일본인 인식은 한국인의 자기인식과 결부되었다. 유교적 전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던 신채호는 명인을 탐욕스럽고 비열하게만 묘사하지 않았으며 조선 대신들 또한 당쟁만 즐기고 겁이 많은 인물로만 표현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유교적 전통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이광수는 명인을 탐욕스럽고 몰인정하게 그렸으며, 명에 의존하는 조선의 왕과 조정대신들을 사대심과 당파심만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였다. 결국 신채호와 이광수의 명인 인식은 유교적 전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긍정과 부정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일본인 인식은 자기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상정할 경우 조선인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이와 반대의 경우는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되었다. 신채호가 일본인을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랜 원수'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순신을 천신에 비유하는 가운데 왜군이 비열하다거나 이순신의 공적을 시기한다는 서술에서도 보듯 그는 왜군과 이순신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방식을 통해 열등한 일본인과 우월한 이순신을 묘사하였다. 반면에, 일본인을 우월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광수는 후자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는 우월한 일본인과 열등한 조선인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조선인의 열등한 민족성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를 취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아홉 적장의 머리를 앞에 놓고 술을 따라서 혼을 위로하였다”⁶⁷⁾는 이광수의 묘사에 나타난 이순신의 모습은 신체호가 일본(인)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이순신이 죽은 왜장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모습은 우월한 일본인 대 열등한 조선인이라는 이분 구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갔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신채호의 『이순신전』과 이광수의 『이순신』에 나타난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방법을 전통의 전유방식과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작품이 위인이나 유교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했던 문학적 실천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신채호가 강직하고 근신하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현안을 가진 건장한 국민적 영웅의 모습을 가진 이순신상을 그렸다면, 이광수는 눈물이 많으며 “무실·역행·충의·용간”을 성정으로 지닌 인물, 즉 영웅보다는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이순신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순신상을 통해 신채호가 자강적 국가정신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했다면, 이광수는 민족정신을 강화하고 계몽하고자 하였다.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한 조선인상은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순신상과 거울상을 이룬다.

신채호와 이광수의 이순신상을 통해 유교적 전통에 대한 그들의 인식도 읽을 수 있었다. 신채호의 경우 조선인이 유교적 전통 요소인 충을 계승함으로써 민족국가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바라고

67) 이광수, 앞의 책, p.207.

있다는 점에서 유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광수가 유교의 병폐를 증명하는 도구로써 이순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열등한 민족성이 조선시대의 사대심과 당파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역사소설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그가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성을 논의했던 내용 및 방식과 동일하였다. 따라서 이광수의 『이순신』은 조선인을 계몽과 동원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전체주의적 문화운동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 일정 부분 제국주의 논리에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광수가 역사소설을 통해 재현한 이순신은 그의 문학론에 토대하여 탄생한 인물로 신채호의 영웅 이순신과는 다른, 개인으로서의 인간 이순신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명인과 일본인에 대한 신채호와 이광수의 인식이 조선인 인식과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명인 인식이 조선의 유교적 전통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었다면, 일본인 인식은 자기인식과 결부되었다. 유교적 전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던 신채호는 명인을 탐욕스럽고 비열하게만 묘사하지 않았으며 조선 대신들 또한 당쟁만 즐기고 겁이 많은 인물로만 표현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유교적 전통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이광수는 명인을 탐욕스럽고 몰인정하게 그렸으며, 명에 의존하는 조선의 왕과 조정대신들을 사대심과 당파심만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였다. 결국 신채호와 이광수의 명인 인식은 유교적 전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긍정과 부정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일본인 인식은 자기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상정할 경우 조선인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이와 반대의 경우는 조선인이 열등한 민족으로 규정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신채호와 이광수가 작품을 통해 재현한 이순신상과 조선인상은 비록 상이

하지만, 이순신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창출되고 만들어진 인물로서 조선인에게 명인 및 일본인과의 차별성을 증명하는 존재이자 민족의 단결과 단합을 고취하는 데 유효한 소재였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품은 신채호와 이광수의 사상과 역사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제출한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담론의 연장선에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담론에 비해 소설이 저자의 무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담론 분석에서 포착해내지 못하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개항 후 타자와 대면하게 되면서 제출되기 시작한 한국과 한국인에 관한 담론을 규명하는 부차 자료로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 방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허구성을 담보로 하는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봉착한 난점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작업이 유의미한 결과물이 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신채호와 이광수의 위인전들과 함께 근대 지식인에 의해 제출된 작품들에도 천착함으로써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후속 연구들에서 다룬 지식인들의 사상과 작품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해 내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5.
 _____, 『단체신채호전집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5.

단체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단체신체호전집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p.495-497, p.506, p.511, p.518, pp.520-521, pp.532-533.

이광수, 『개벽』23, 개벽사, 1922, pp.19-20, pp.38-39, pp.45-46.

_____,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71, p.551.

_____, 『이광수전집5』, 삼중당, 1971, p.203, p.207, p.213, pp.220-221, p.270, p.309, pp.321-322, p.336, p.599, p.600.

2. 논문 및 단행본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에 빠지다』, 삼인, 2011, p.133, pp.229-230.

김승환, 『단체 신체호의 문학사상과 문예반정』, 『문학사와 비평』4, 문학사와비평학회, 1997, pp.13-14, p.20.

김윤식, 『한국 신문학 초창기의 문학과 비평의 양상(상)』, 『현대문학』19-1, 현대문학사, 1973, pp.292-298.

김재용 외, 『한국근대 민족문학사』, 한길사, 2006, pp.71-74, p.504.

김지영, 『『무정』에 나타난 ‘사랑’과 ‘주체’의 근대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p.82.

김현주, 『신체호 소설에 나타난 영웅의 변모양상 연구』, 『어문학』105, 한국어문학회, 2009, pp.309-310.

_____, 『망명 이후 신체호 소설의 인물 형상 연구-근대에서 탈근대 이행(移行)과 관련하여』, 『한민족어문학』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p.368.

단체신체호선생기념사업회, 『신체호의 사상과 민족독립운동』, 형설출판사, 1986, p.306.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p.83, p.167, p.197, p.302.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 현실문화, 2009, p.226.

송백현,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p.65.

신춘자, 『신체호의 소설연구』, 『국어국문학』93, 국어국문학회, 1985, p.283.

우남숙, 『신체호의 국가론 연구』, 『한국정치학회보』32-4, 한국정치학회, 1999, p.22.

_____, 『한국 근대사에서의 국가유기체설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자료집』1999-33, 한국정치학회, 1999, p.22.

이선이, 『일제강점기 한국과 일본의 조선민족성 담론 비교』, 『비교한국학』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p.447.

- 이선이 외, 『동아시아 근대 한국인론의 지형』, 소명, 2012, p.17.
- _____. 이준데, 『근대 초 조선민족성 담론의 형성 배경과 논의 방식』, 『비교한국학연구』18-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pp.272-275.
-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007, p.164, pp.316-317, pp.364-365.
- 임형택 외, 『전통, 근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권력』, 인물과사상사, 2010, pp.85-86.
- 진경환, 『전통과 담론-전망적 요청을 겸한 단상』, 『어문논집』61, 민족어문학회, 2010, pp.397-417.
- 최경호, 『역사소설 연구-신채호, 김동인, 안수길의』, 『한국어문연구』9, 한국어문연구학회, 1995, p.227.
- 한영우, 『한국사 인물 열전』, 돌베개, 2003, p.71.

Abstract

The Tradition appropriation and recognition of others
in the historical novels on 'Lee Soon-Shin'
- focused on Shin Chae-Ho and Lee Kwang-Soo -

Shin, Sun-Hee

This paper is aimed to study how to create the identity of Korean(ChoSeon-In) through biographies at the Early Modern Korea. The texts analyzed are “the greatest naval commander Lee soon-shin (水軍 第一偉人 李舜臣)” serialized in 『Daehan maeil shinbo(Korean Daily News Paper)』 (1908.5.2.~8.18) by Shin Chae-ho and “Lee Soon Shin (李舜臣)” in 『Dong-A Ilbo(East Asia News paper)』(1931.7.16.~1932.4.3) by Lee Kwang-soo. These works deserve attention in terms that they could be regarded as an extension of the intellectual discourses attempting to create the identity of Cho Seon and ChoSeon-in by focusing on Tradition in the patriotic enlightenment era and Japanese colonial era. With the purpose of edifying the modern national characteristics(國性) and patriotism, Shin Chae-ho attempted the modern conversion of Tradition to inbreathe ‘Sate-spirit = National spirit’. On the other hand, Lee Kwang-Soo reflected the 1920s’ cultural nationalism in his work.

Eschewing the traditional research approaches classifying and examining the works by the genealogy of Korean literature, this study examined two from the viewpoint of the history of culture. Also this paper focused on how Shin Chae-Ho and Lee Kwang-soo appropriated Tradition in their works, embodied Chinese of Ming Dynasty and Japanese during Japans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rough this, delineated ChoSeon-in.

Key Word : Shin Chae-Ho, Lee Kwang-Soo, Lee Soon-Shin, Discourse of the Great Man, national Egoism, Korean(ChoSeon-in), identity, tradition,

recognition of others

신선희

소속 :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ohmysuny@khu.ac.kr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

